

한전KDN(주)

21세기 e-Business의 리더



대표이사 鄭 然 東

- 1970.2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
- 1976.5 LG 정유
- 1979.12 울산건설
- 1988.7 PRICE WATERHOUSE (미 회계법인) 관리이사
- 1997.12 아남전자 HONGKONG 유한공사 대표이사 겸임
- 1998.8 한전KDN 정보사업실장
- 2000.1 한전KDN 부사장
- 현재 한전KDN 사장

1992년 1월 한국전력의 정보통신분야 자회사로 설립된 한전KDN은 그동안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을 전담하며 전력산업 선진화에 기여해 왔다.

현재는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통합 운영, 초고속통신 사업, 전력계통 자동화시스템 구축,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의 핵심 솔루션을 보유하고 e-Business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종합정보통신회사로 성장하였다.

기술연구센터와 국내 유일의 전력계통기술센터를 설립, 첨단기술의 국산화와 기술자립에 주력해 왔으며, 국제 품질보증 인증제도인 ISO 9001 및 TickIT 인증을 획득,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25개에 달하는 방대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전KDN의 새 천년 비전은 'e-Biz Leader in the Digital World'이다. 국가의 핵심 지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시대의 e-Business 경쟁력을 높여주는 기간 IT사업자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 비전의 핵심이다. 한전KDN은 앞으로 전력정보통신 전문 SI기업으로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e-Biz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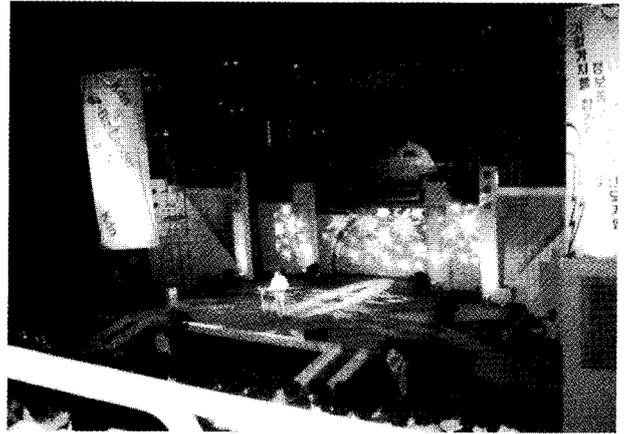
사옥전경 ▶

전력산업의 정보통신, 세계적인 기술력 확보

한전KDN은 설립 초기부터 전력산업을 지원하는 최적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전력산업의 정보통신 지원자로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전력정보통신에 집중하고 전문화하여 한전과 전력산업, 나아가 국민경제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을 성실히 실천해 왔다. 전산, 통신부문의 IT Outsourcing을 주축으로 전력통신망 SM사업, 전력계통자동화, 산업정보망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한전KDN은 2000년 4월 새 천년 비전 선포와 함께 조직체계, 기업문화, 경영전략 등을 일신하며 경영 패러다임을 새롭게 재편했다. 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의 물결, 전력산업구조개편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가의 핵심 지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간사업자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KDN의 사업영역은 e-Service, e-Infra, Automation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한전KDN 새천년 비전 선포식

<e-Service>

e-Business에 주력 ... 인터넷 방송국도 설립

e-Service 사업부문에서는 전력산업의 다양한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첨단 SI능력, 완벽한 정보보안시스템, 이미 검증받은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고객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신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경영 정보, 인사, 급여, 영업, 자재, 생산 등 고객사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도 환경에 적합한 '맞춤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에서부터 정보시스템 컨설팅에서 설계,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One-Stop 토털서비스, 소프트웨어·하드웨어·네트워크를 망라



정연동 사장은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업체인 네띠앙 홍윤선 사장과 ASP 사업 공동진출과 인터넷 비즈니스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한 최상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 그리고 e-Business와 지식경영의 기반이 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IBC(Internet Business Center), 콘텐츠사업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전KDN은 특히 디지털 세계의 기반을 다지는 e-Business에 주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술을 B2C, B2B, B2G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정보컨설팅 사업, 전자서명, 전자화폐, 전자보안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KDN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설립을 통해 ASP, IBC 사업 이외에도 인터넷 빌링서비스, 웹호스팅서비스, 통합메시징서비스 등 고객의 지식 창조에 기여하는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방송의 새로운 이정표도 세우고 있다. YTN, AOL, 실리콘밸리 뉴스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합 멀티미디어 사업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며, 이미 국내 최초로 3D 입체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국 'Power-TV.com'을 설립,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빠르고 강력한 첨단 네트워크 솔루션, 세계 수준 평가

<e-Infra>

한전KDN은 국내 최대 규모이며 세계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전력의 통신 인프라를 설계, 통합구축, 유지관리해온 기업이다. 빠르고 강력한 첨단 네트워크 솔루션은 이미 세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Infra 사업부문에서는 45,000km에 달하는 전국 광케이블망, PCS망 등 기간통신사업자망과 38,000km에 달하는 케이블TV망, HFC망을 구축, 유지관리하고 있다. 또 OPGW를 비롯한 전국 전력통신망도 구축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정보처리설비, 네트워크설비, 교환설비, 전송설비, 단말설비 등 정보통신 설비에 대해 구축 및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PGW 유지관리 현장

다중화장치, 광전송장치, Router, Switching Hub, ATM Switch, 모뎀 등 e-Business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첨단 네트워크 장비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선 통신 사업(PLC, Power Line Communication)의 조기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Infra 사업부문에서 한전KDN의 강점은 국가 기간망인 전력통신망 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망까지 다양한 사업경험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비롯해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 14개 지점과 11개 영업소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전산실, 정보통신 및 케이블TV 설비 운영, 유지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점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전력·통신설비에 대한 전국적인 통합 DB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또다른 강점이다.

한전KDN은 이를 바탕으로 한전 및 기간사업자의 망 구축 및 운영관리의 선두주자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는 네트워크 환경과 기술변화에 고객들이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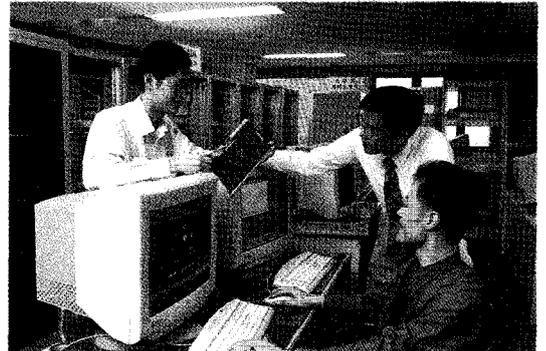
<Automation>

전력계통 자동화 시스템,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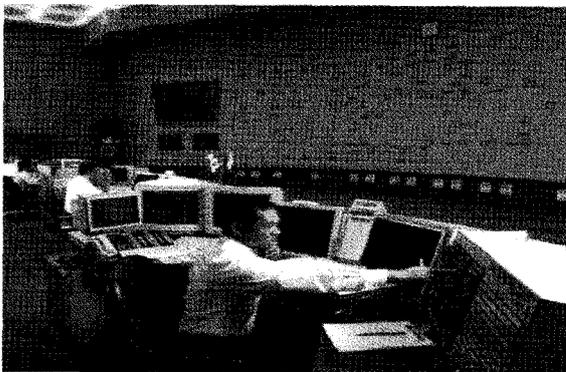
한전KDN은 전력계통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급전자동화시스템, 송변전자동화시스템, 배전자동화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력계통 자동화 전 분야에서 이미 독보적인 핵심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93년에 기술연구센터를, '97년에는 국내 유일의 전력계통기술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신기술 개발과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와 기술자립에 박차를 가해온 덕분이다.

국내 최초로 송변전자동화시스템 주장치의 국산화에 성공한 것을 비롯하여 에너지 급전 전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전자동화 분야에서는 시스템 설계, 제작, 시운전 및 통합기술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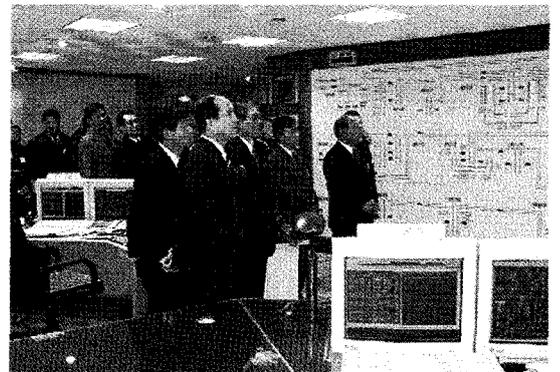
한전KDN은 또한 전력계통 자동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솔루션 등 기존 역량을 고도화하여 지능형 빌딩시스템, 원격 감시 제어시스템, 검침자동화, 산업자동화 등 제어·계측 및 응용 자동화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외에도 첨단 자동화시스템, 각종 장치 및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여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동화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회사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국내 유일의 전력계통기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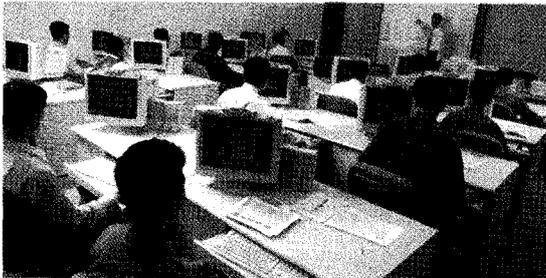
EMS(에너지급전시스템)



국내 최초의 SCADA 시스템 국산화 1호 준공식

R&D 부문에 1800억 투자... 신기술 네트워크도 구축

<품질경영 · 연구개발>



인재개발센터 교육장면

한전KDN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모든 기술과 서비스는 그 품질을 믿을 수 있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전KDN의 품질경영은 국제품질보증 인증제도인 ISO 9001 및 TickIT 인증이 증명한다.

최적의 솔루션을 위해 국제 품질요건에 부합하는 수준높은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혁신을 거듭하는 한전KDN의 품질관리는 까다롭고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한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려 92개의 품질보증절차서가

작성되고 또다시 내부감사 및 자체평가를 통해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한전KDN은 올해부터 3년간 총 1800억원을 R&D 부문에 투자할 예정이며, 직원들의 기술과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예산을 매년 150%씩 증가시켜 3년간 총 190억원을 투자하여 핵심역량을 한층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e-Business 파트너로서 위상에 걸맞는 신기술 개발에 주력할 뿐 아니라 신사업 중심의 R&D를 장려하고, 산학연 합동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IBM, 오라클, 네피양, GE-Harris 등 국내외의 우수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 기술네트워크(New Technology Network)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하는데도 매진하고 있다.

한전KDN은 중국,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 미주, 중남미 등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한편,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초우량 정보통신 회사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연혁

1992년	1997년
1.23 세일정보통신(주) 설립(한전 100% 출자)	1.15 ISO 9001 및 TickIT 인증 획득
제1대 대표이사 이강연 취임(1999. 12. 30)	4.22 원격기술교육협회 회장직으로 선정
4.13 전력계통 지동화 장비 공장 설립	10.22 중소기업청 공동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개소
8.17 사육이전(영등포구 여의도동 21)	12.5 전력계통기술센터 설립
12.30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자 등록(제신부)	12.8 YTN 출자(30%)
1993년	1998년
4.14 제2대 대표이사 이호림 취임	2.1 산업정보망 시범서비스 실시
5.25 S사업자 등록(과학기술처)	4.2 인재개발센터 설립
5.26 기술연구소 설립	9.3 제4대 대표이사 서사현 취임
	11.30 YTN 증자(회사 납입자본금 640억원)
1994년	1999년
8.2 국가 산업정보망 전담사업자 선정	4.17 본사 사육이전(중구 홍인동 13-1 한성프라자 B/D)
11.12 한전 케이블TV 전송망 구축 사업자 선정	4.21 기업윤리강령 선포
1995년	5.10 한전 전산업무 전면위탁 협약 체결
3.20 본사 사육이전(여의도 23-5 제일증권 B/D)	11.5 2000년 개장 전력거래시스템 개발권 수주
5.2 한전 정보통신 위탁합정 체결	
5.16 전국 24개 사업소 개설	2000년
1996년	1.7 한국IBM과 전략적 제휴
4.13 제3대 대표이사 최대용 취임	1.14 제5대 대표이사 정연동 취임
4.20 한전정보네트웍(주)로 사명변경(사칭립기념일 변경)	3.6 YTN과 전략적 제휴
10.25 비전 2005 선포식 개최	4.20 한전KDN(주)로 사명변경
	"e-Biz Leader in the Digital World" 비전 선포